

---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道 國民學生의 經濟意識 調査

指導教授 朴 龍 垞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任 英 信

1994年 8月

# 濟州道 國民學生의 經濟意識 調査

指導教授 朴 龍 炯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 專攻

提出者 任 英 信

任英信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4年 7月 日

審査委員長

金 恒 元



審査委員

宋 成 泰



審査委員

박 용 경



# <抄 錄> 濟州道 國民學生의 經濟意識 調査

任 英 信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 專攻

指導教授 朴 龍 炯

본 연구는 제주도내 국민학교 5,6학년 학생들의 경제의식을 조사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경제교육 및 경제의식 형성의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消費, 貯蓄 및 節約, 職業, 經濟自立, 經濟現實, 經濟的 未來 등 6개 영역 24문항의 질문을 묻는 조사를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1152명의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背景變因別로 백분비와  $\chi^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와 관련된 학생들의 경제의식은 상품선택시 품질에 기준을 두어 선택한다가 50.5%로 모양이나 가격에 기준을 둔다는 반응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바람직하였다. 선전에 의한 상품의 질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경우가 40.5%였고, 백화점 상품을 일반시장 상품보다 선호하였다. 또한 高價品의 질이 좋을 것이라는데는 부정적이었으며 수입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응이었다.

둘째, 저축 및 절약과 관련된 경제의식에서는 학용품 분실시 꼭 찾는 경우가 3.6%로 학용품에 대한 애착이 약했으며, 교사에게 의뢰하기보다는 혼자 찾거나 친구와 함께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용돈 마련면에서는 스스로 심부름을 해서 받는 경우보다 부모님께 타 쓰는 경향이 컸고 학용품

재활용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강했다. 저축은 55%가 부모님께 타서 한다고 했으며 용돈에 대한 만족도는 68.8%로 높았다.

셋째, 직업과 관련된 경제의식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데 52.0%의 반응을 보였으며 생활정도가 낮을수록 귀천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업선택시의 기준에서는,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택하겠다는 질문에 대해 여유있는 계층(상류층) 학생들일수록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정신노동과 인문계진학을 선호하고 있었다. 직장취업시 중요한 것은 최종학력이나 성적보다는 열심한 자세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경제자립과 관련된 경제의식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책임이 고등학교 졸업까지(35%), 대학졸업까지(24.3%), 취직할 때까지(14.1%), 결혼까지(12.9%), 결혼이후라도 사정에 따라(13.7%)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경제자립면에서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부모님께 의존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제현실과 관련된 경제의식에서는 자신의 주변환경에 대한 경제적 견해를 알아보았다. 가정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69.8%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노력과 성공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80.8%로 긍정적이었으며, 노력하면 기회는 주어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난의 책임을 물은 결과, 자기자신에 있다는데 44.4%, 우리 나라에 있다는 응답이 36.4%였고, 여유있는 계층(상류층)일수록 자기 내적인데서 가난의 책임을 찾는 경향을 보였다.

여섯째, 경제적 미래와 관련된 경제의식에서는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78.6%로 긍정적이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전망에서는 79.5%가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빈부의 차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는 여유있는 계층(상류층)일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6학년(18.6%)보다는 5학년(35.1%)이 빈부의 차가 없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연구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따라 학교 경제교육도 아동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경제 현상을 제시하여 이를 합리적,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둘째, 학교 경제교육에서 소비자 교육과 근검 절약하는 태도의 교육이 저축 증대책으로서, 그리고 올바른 경제인 양성으로서의 교육이 되도록 학교 경제교육 비중의 확대가 필요하다. 수입 개방화에 따른 바른 소비자 교육, 자기 소지품에 대한 애착심의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고등학교 진학시 실업계 진학 보다 인문계 진학의 선호가 아주 높게 나타나 합리적인 생산활동의 참여를 통해 국가발전에 공헌하도록 하는 경제교육이 요구된다.

넷째, 가난의 책임이 자신보다는 가족이나 국가에 있다는 아동들에게 국가 사회에 대한 요구에 앞서 한 사람의 경제인으로서 책임을 강조하는 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어린이들의 경제의식 습득의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경제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되어야 하겠다.

# 目 次

I .序論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制限點	2
II .理論的 背景	4
1.經濟意識의 概念	4
2.經濟意識의 形成과 組織	5
3.經濟教育 改編의 方向	7
4.經濟意識에 關한 先行研究	8
III .研究의 方法	12
1.調查道具	12
2.標集	12
3.資料處理	14
IV .結果 및 論議	16
1.消費	16
2.貯蓄 및 節約	26
3.職業	38
4.經濟自立	47
5.經濟現實	50
6.經濟未來	55
V .結論 : 要約 및 提言	62
參考 文獻	67
英文 要約	68
附 錄	71

# 표 목 차

<표 1> 경제의식의 결합요소.....	6
<표 2> 경제의식의 형성 과정.....	7
<표 3> 경제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9
<표 4> 질문지 문항 구성.....	13
<표 5> 질문지 배부 및 회수 상황.....	14
<표 6> 배경 변인별 자료 처리 인원.....	15
<표 7> 상품 선택의 기준.....	17
<표 8> 선전에 의한 상품의 질에 대한 인식.....	20
<표 9> 백화점 상품과 일반시장 상품에 대한 인식.....	21
<표 10> 고가품에 대한 인식.....	23
<표 11> 수입품과 국산품의 질 비교.....	24
<표 12> 유명상표에 대한 인식.....	26
<표 13> 학용품 분실시의 태도.....	27
<표 14> 용돈 마련 방법.....	29
<표 15> 학용품 재활용 태도.....	31
<표 16> 저축 여부.....	33
<표 17> 저축 태도.....	35
<표 18> 용돈에 대한 인식.....	37
<표 19> 직업에 대한 귀천.....	39
<표 20> 직업 선택의 기준.....	41
<표 21> 선호하는 직업.....	42
<표 22> 직장 취업시 중요 요소.....	44
<표 23> 고등학교 진학 계열.....	46
<표 24> 경제적 면에서 부모의 책임 한계.....	49
<표 25> 가정의 생활 수준.....	51

---

<표 26> 노력과 성공의 관계.....	52
<표 27> 가난의 책임.....	54
<표 28>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	57
<표 29> 경제 전망.....	59
<표 30> 빈부의 차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	60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나 국가 모두 경제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것은 시대가 흐를수록 더욱 고조화될 것이 분명하다. 개인은 보람있는 삶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는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절대 절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현행 국민학교에서 경제교육의 목표가 경제생활과 관련된 기초원리를 이해시키고 경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함에 있는데<sup>1)</sup> 그 내용이 5,6학년에 집중적으로 들어 있으며 1~4학년에는 아주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있고 경제 개념이 다른 영역의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난해하게 거론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2)</sup>

또한 학교 경제교육이 주로 이론 위주의 인지적인 학습 내용을 강조한 반면 급변하는 경제, 사회적인 환경 변화와 관련된 학생들의 의식, 태도, 가치관, 신념, 도덕성 등 정의적인 측면의 교육에는 소홀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sup>3)</sup>

이러한 학교 경제교육이 이 사회를 젊어지고 나아가야 할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 교육으로서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다행히 6차 교육과정에서는 경제영역을 다른 영역과 관련시켜 다루게 되

1)곽병선 외(1987),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사, p.132.

2)최병모(1992), “제6차교육과정중 경제교육의 주요내용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경제교육」, 국민경제연구소, p.98.

3)임천순·정태화·이광호(1990), 「청소년 경제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14.

어 있고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관되면서 생활경험과 관련된 학습내용으로 구성하게 됨에 따라 경제 내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개정될 것이므로,<sup>4)</sup> 경제 원리의 단순한 주입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의 올바른 가치판단과 공동체적 삶의 윤리적 경제교육의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교육은 경제현실에 대한 이해와 가치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경제환경과 경제문제의 대두로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은 어린시절에서 단절되지 않고 일생을 통해 환경과의 적응과정에서 변화되고 보완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의 경제의식과 경제교육은 중요성을 가지며 이들의 건전한 경제의식 형성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 인격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실태 조사는 중요성을 갖는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경제의식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의식 현황을 밝히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경제의식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의 제한점

첫째,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의식을 조사하는데 질문지법이 갖는 한계가 있다.

---

4)교육부(1993),「국민학교 교육과정 연수자료」, p.135.

5)임천순 외(1990), 전계서, p.13.

---

둘째, 연구대상은 학생수 비례와는 관계없이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에 위치한 국민학교 3개교씩 총 12개교 11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II.理論的 背景

### 1. 경제의식의 개념

경제의식이란 쾰바르트(W. Sombart)가 경제학의 체계내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정의하였으며 경제사회를 이해하는데 불가결의 요소로서 경제적 주체의 행위를 규정하는 목적, 동기, 행위, 규율을 총칭하는 것<sup>6)</sup>이라고 하였다.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사회 속에서 인간의 경제에 대한 태도 또한 변화되는 바 쾰바르트는 경제의식을 “경제적 지향”이라고도 하였고, 경제제도를 이해하려면 기술, 질서, 정신, 의식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하였다.<sup>7)</sup>

쾰바르트가 주장한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의 발전에는 경제의식이 자본주의적으로志向되어야 한다.

둘째, 여러가지의 企業簿記 또는 상행위가 자본주의적 의식 밑에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자본주의적 경제의식과 아울러 자본주의적 대량 생산을 가능케하는 기술 및 자본주의적 질서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나타난다.

넷째, 어떠한 경제조직의 발전과 변혁도 경제의식과의 관련없이是不可能的할 수 없다.

또한 조영달은 인지적 측면에서 경제학 연구의 방법과 함께 기본적인 경제지식을 익혀 경제학적 사고 방식을 터득하고 情誼的 측면에서 그 사회에 필요한 경제윤리를 확립할 때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경제의식

6)權五翼 外(1986), 「經濟學大辭典」, 博英社, pp.119-120.

7)상계서, pp.119-120.

을 형성했다 할 것이며 이때의 경제의식은 경제주체에 있어서 그 경제 행위의 목표, 그 경제행위의 원칙과 함께 그 행위를 일으키는 실제의 대인적 交渉樣式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며, 이는 목적의식, 방법의식과 함께 사회관의 근거를 포괄하는 개념과 흡사하다고 했다.<sup>8)</sup>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의식이란 말은 경제적인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적, 정의적, 평가적 반응 성향을 총칭하는 것<sup>9)</sup> 또는 국민경제나 가계운영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 또는 가치관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sup>10)</sup> 또는 노동에 대한 가치의식, 기업의식, 소비의식, 국민경제 및 국제경제에 대한 의식, 경제 우선을 초월하는 인간 존중이나 국민복지를 중시하는 의식 등을 내포한다 하겠다.<sup>11)</sup>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표 1>과 같은 여러가지 가능성 있는 요소들의 결합에 의하여 경제의식이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sup>12)</sup>

## 2. 경제의식의 형성과 조직

경제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논의는 다양하나 대체로 지식의 구조와 탐구의 방법 및 정의적 요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

---

8) 曹永達(1985), “民主市民 敎育으로서의 經濟敎育,” 『社會와 敎育』,

제9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p.89.

9) 曹永達(1992), “韓國 經濟社會의 變革과 市民 經濟敎育의 改善에 關한 研究,” 『韓國 經濟敎育의 實態 및 課題』, 國民經濟研究所, p.318.

10) 안청시·최일섭(1987),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집문당, P.123.

11) 조영달(1985), “民主市民 敎育으로서의 經濟 敎育,” 『社會와 敎育』, 제9집, 韓國社會科敎育學會, P.89.

12) 權五翼 外(1986), 전제서, pp.119-120.

<표 1> 경제의식의 결합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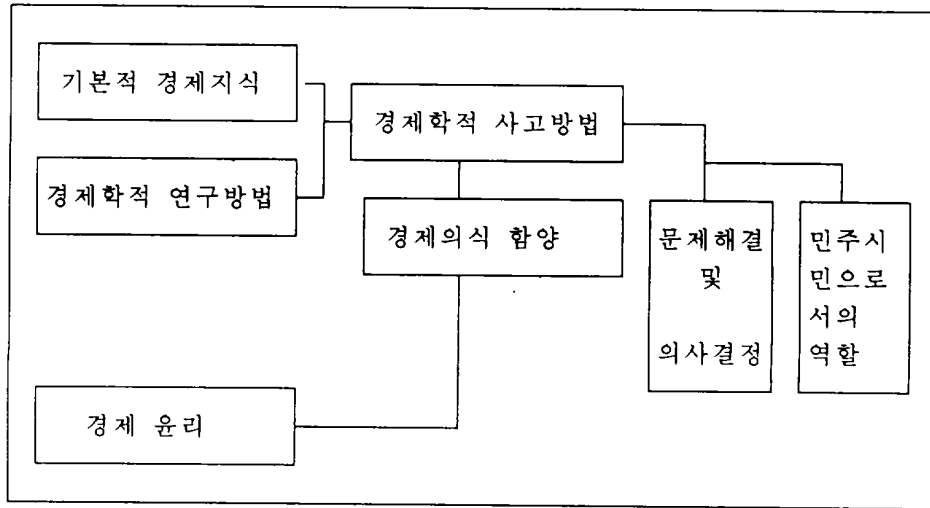
영역	요소	경제의식
의식	욕망충족주의와 영리주의 전통주의와 합리주의 연대주의와 개인주의	
조직	구속과 자유 개인경영과 사회경영 사경제와 공경제 자급경제와 交流경제	
기술	경험적과 과학적 靜態的과 혁명적 조직적과 비조직적	

에 일치하고 있다. 즉, 기본적인 경제지식과 함께 경제학적 방법론을 가르칠 때 이러한 면의 기초 위에서 인지적인 측면의 경제학적 사고방법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정의적인 측면에서 경제윤리의 교육이 더해질 때 위의 경제학적 사고방법과 경제윤리를 기반으로 하여 민주주의하의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경제의식이 형성되는 것이다.<sup>13)</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경제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또는 공공의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이는 곧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의식의 형성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13)曹永達(1985), 전제서, p.89.

<표 2> 경제의식의 형성과정



### 3. 경제 교육 개편의 방향

사회과가 학교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 된 후, 다섯 차례의 교육개정이 있어 왔는데 특히 1980년대에는 사회과 교사들의 경제교육 교수학습 방법에도움을 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sup>14)</sup>

그러나 사회에서는 학교 경제교육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왔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내용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홍보나 경제개발의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임천순 외(1991), 「경제교육 내용,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국 교육개발원, p.130.

둘째, 학생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비추어 볼 때 경제의 개념이나 기본원리의 설명이 추상적이고 어렵다.

셋째, 경제교육의 내용이 어떤 경제문제 또는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에 대한 균형있는 안목이나 시각을 갖도록 짜여져 있지 않다.<sup>15)</sup>

이에 경제교육 교수학습의 지향 방안을 살펴 보면,

첫째 경제 교육 교수학습 이론과 방법이 사회과 교실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수업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먼저 학습자의 상태와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 단원이 학생들이 경제 개념에 대해 갖는 사고의 발달 단계에 맞게 선정 조직되어야 한다.

셋째 교과서가 지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의 경험과 상상력에 관계가 있는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활발해져야 한다.<sup>16)</sup>

따라서 학생들의 경제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모형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sup>17)</sup>

#### 4. 경제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청소년 경제 가치관 조사 연구”에서 4년제 대학 진학생, 그리고 취업 초년생들에 대해 자신이나 사회가 처하게 될 경제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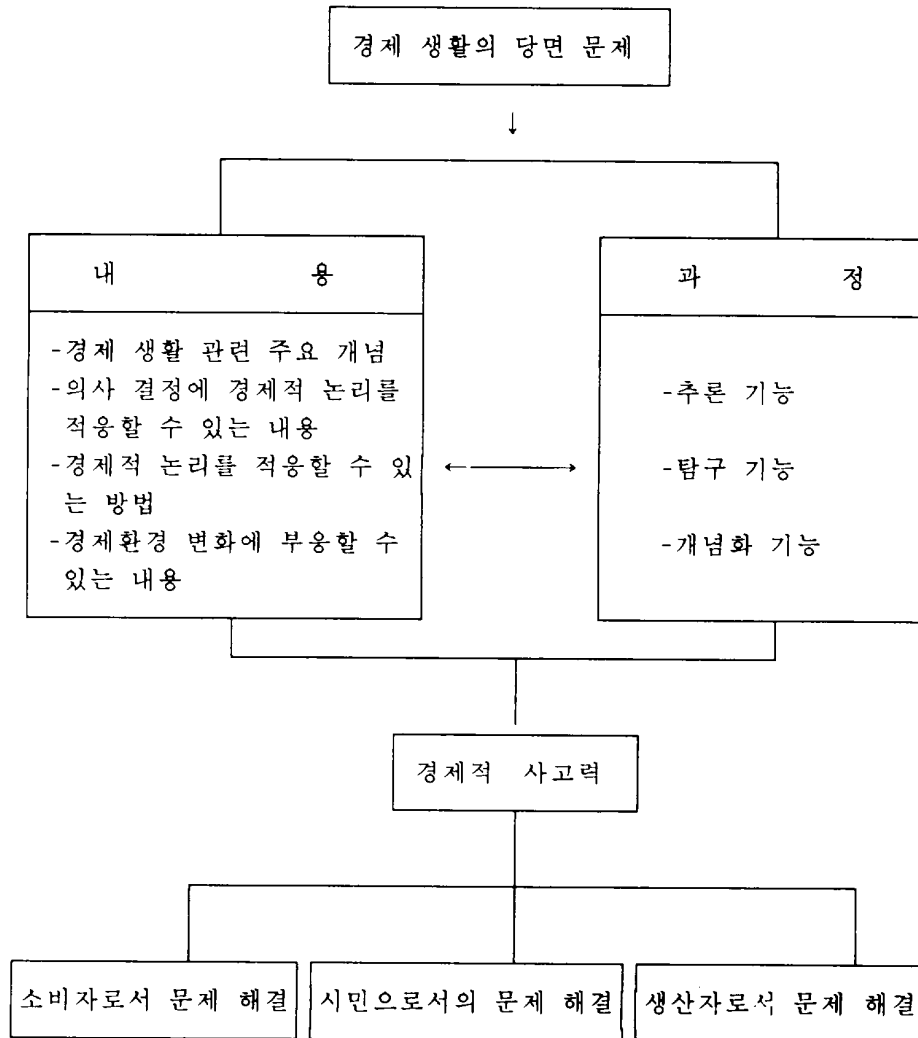
15) 이재웅 외(1987), 「국민학교 경제교육 연수자료」, 한국교육개발원, pp.67-68.

16) 이재웅 외(1987), 상계서, pp.130-132.

17) 이재웅 외(1987), 상계서, p.132.



<표 3> 경제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상황, 경제 현안 문제, 그리고, 경제 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영역에 대한 반응을 살펴 봄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내용이

그들이 계획하는 진로에 따라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였다.

강태준은 “국민학교 학생의 경제 가치관 조사 연구(인천 직할시를 중심으로)”<sup>18)</sup>에서 국민학교 학생의 경제 가치관은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영역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 견해가 차츰 증가하여 그간의 경제교육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정태는 “탐구학습 과정을 통한 경제 개념, 원리 이해 및 사고력 신장을 위한 연구”<sup>19)</sup>에서 ‘경제 단원’에 탐구학습 과정을 적용한 결과, 첫째 종래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식 수업은 수업시간에 학생의 이해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었는데 탐구학습을 한 결과 교수학습의 장이 입체화 되고 활력적인 학습의 장이 되었다. 둘째 탐구학습을 함으로써 경제 개념 원리의 학습량은 증대되고 학습에 필요한 노력은 경감되었다. 셋째 제기된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탐구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미래에 부딪히게 될 많은 경제 문제들은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곽영길은 인천지역의 “국민학교 학생의 경제의식 조사”<sup>20)</sup>에서 경제의식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의 의식도 깊이 내면화되어 있어 보다 바람직한 경제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국민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대책이 강구

---

18) 강태준(1992), “國民學校 學生의 經濟價值觀 研究,”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80.

19) 전정태(1992), “탐구학습 과정을 통한 경제 개념, 원리 이해 및 사고력 신장을 위한 연구,” 「경제교육」, 국민경제연구소, p.24.

20) 郭英吉(1988), “國民學校 學生의 經濟 意識에 관한 調査 研究,”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 대학원, p.24.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병두는 “고교생의 경제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sup>21)</sup>에서 절약지향율을 높여야 하겠으며, 소비자 교육 실시와 올바른 직업교육 실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성실하면 잘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기틀이 마련됨과 동시에 근로 생활자들에게 노력에 대한 응분의 댓가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정호는 “제주도 중학생의 경제의식 조사”<sup>22)</sup>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개방화 국제화의 흐름에 대비하여 각종 청소년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중학생의 경제의식이 조사되어 바람직한 경제의식 형성을 위한 지도자료로 삼아야 한다는데 의의를 두어 조사를 하였으며, 고학년일 수록 돈을 중시하는 문제와 빈곤의 책임을 자기 자신 이외의 탓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제기하였다.

이상과 같이 문헌 및 선행연구물들을 고찰해 본 결과,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경제의식의 고취는 중요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경제활동의 연속이라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경제관의 형성은 성인이 되어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 교육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의 추진이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다.

---

21) 吳柄斗(1980), “高校生の 經濟意識에 관한 調査研究,”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p.72-73.

22) 金正浩(1993), “濟州道 中學生의 經濟意識調査,”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62.

### Ⅲ. 研究의 方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조사연구는 질문지법을 채택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체계를 위해 국민학교 아동들의 의식, 태도와 관련된 문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국민학교 아동들의 경제의식 분석의 틀을 수립하는데 기초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경제의식의 주요 영역 및 내용요소를 추출하였고 경제의식의 개념정의 및 형성과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질문지 작성에 필요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의 질문지 중에서 선택하고 연구자가 추가하여 만들었다. 예비조사는 1993년 11월 2일 태흥국민학교 5,6학년에 재학중인 70명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후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확정하였으며 문항의 구성은 <표 4>와 같다.

#### 2. 표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1993학년도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5학년과 6학년 아동이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총 1152명이 표집되었다.

우선 표집 대상자를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12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와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지역별로 대규모 학교 1개교, 소규모 학교 2개교, 각 3개교씩 12개 학교를 무작위 표집하였다.

<표 4> 질문지 문항 구성

영역	내용	문항번호
소비	상품선택의 기준	1
	선전에 의한 상품의 질에 대한 인식	2
	백화점상품과 일반시장상품에 대한 인식	3
	고가품에 대한 인식	4
	수입품과 국산품의 질 비교	5
	유명상표에 대한 인식	6
저축 및 절약	학용품 분실시의 태도	7
	용돈 마련 방법	8
	학용품 재활용	9
	저축 여부	10
	저축 태도	11
	용돈에 대한 인식	12
직업	직업에 대한 귀천	13
	직업 선택의 기준	14
	선호하는 직업	15
	직장 취업시 중요 요소	16
	고등학교 진학 계열	17
경제 자립	경제적 면에서 부모의 책임한계	18
경제 현실	가정의 생활 수준	19
	노력과 성공의 관계	20
	가난의 책임	21
경제 미래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	22
	경제 전망	23
	빈부의 차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	24

질문지는 1993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학교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 후 회수하였으며, 총 1152부 중 1094부를 회수 94.9%의 회수율을 보였다.

질문지 배부 및 회수 상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질문지 배부 및 회수 상황

	학년별		거 주 지 별				성 별		합
	5학년	6학년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남	여	
배 부	580	572	288	288	288	288	583	569	1152
회 수	555	539	285	276	268	265	551	543	1094
%	95.7	94.2	98.9	95.8	93.1	92.0	94.5	95.4	94.9

질문지의 응답결과를 통계처리하기 위하여 회수된 질문지를 검토, 응답이 누락되거나, 한 문항에 2개 이상의 응답을 한 질문지 46부를 통계에서 제외시켜 실제 연구 대상 인원은 1094명이다. 이를 변인별로 보면 <표 6>과 같다.

### 3.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제주대학교 전산실에서 각 배경변인별로 나누어 문항별 집계를 하고 이를 백분비(%)로 산출하였으며, 배경변인별 유의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chi^2$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배경변인별 집단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반응 결과만 제시하기로 하였다.

<표 6> 배경변인별 자료 처리 인원

배경변인	변인 구성	변인 크기	변인 구성비 (%)	계
1.학년별	5학년 6학년	555 539	50.7 49.3	1094
2.성 별	남 여	551 543	50.4 49.6	1094
3.지역별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285 276 268 265	26.1 25.2 24.5 24.2	1094
4.계층별	매우 여유있음 여유있음 보 통 어 려 움 매우 어려움	107 310 562 102 13	9.8 28.3 51.4 9.3 1.2	1094
5.경 제 적 책 임	아버지 부모 맞벌이 어머니 기타	261 697 67 69	23.9 63.7 6.1 6.3	1094
6.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회사원 서비스업 감귤 과수원 일반 농·어업 기타	144 151 176 290 98 235	13.2 13.8 16.1 26.5 9.0 21.5	1094

## IV . 結果 및 論議

24문항에 대한 표집대상들의 반응결과를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로 영역과 내용별 문항 순서에 따라 전체 응답자의 반응 경향 및 반응 분포를 제시하고, 둘째로 표집대상의 배경변인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유의한 차의 결과를 중심으로 반응 경향을 해석하고 논의하려고 한다.

### 1. 소비

국민학교 아동들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소비와 관련된 생활의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급속히 변화해 가는 소비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바로 어떤 경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와 직접 연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전통시장보다는 백화점의 상품을, 국산품보다는 수입상품을 선호하는 경향,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과소비 현상 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면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상품의 유형을 중심으로 상품선택의 기준, 선전에 의한 상품의 질에 대한 인식, 백화점 상품에 대한 인식, 고가품에 대한 의견, 수입품과 국산품의 질 비교, 유명상표에 대한 인식 등을 위주로 국민학교 아동들이 소비자로서 상품에 대하여 갖고 있는 견해를 부분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 1) 상품선택의 기준

상품을 선택할 때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물건의 어떤 점에 기준을 두어 구입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7> 상품 선택의 기준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 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94 (100)				7.0	17.5	21.4	50.5	3.6
학년 별	5	555 (50.7)	12.531	4	* 0.014	7.7	14.6	19.3	54.2	4.2
	6	539 (49.3)				6.3	20.4	23.6	46.8	3.0
성 별	남	551 (50.4)	22.124	4	**** 0.000	8.3	12.3	22.1	53.0	4.2
	여	543 (49.6)				5.7	22.7	20.6	48.1	2.9
생활  정 도 별	매우 여유있음	107 (9.8)	32.856	16	** 0.008	7.5	23.4	23.4	43.9	2.8
	여유있음	310 (28.3)				8.4	15.5	19.0	55.2	1.9
	보통	562 (51.4)				6.0	17.6	19.9	52.0	4.4
	조금 어려움	102 (9.3)				8.8	17.6	32.4	38.2	2.9
	매우 어려움	13 (1.2)				0	7.7	46.2	30.8	15.4
경제 적  책 임 별	아버지	261 (23.9)	21.509	12	* 0.043	4.6	20.3	23.4	48.3	3.4
	부모	697 (63.7)				6.7	16.8	20.7	51.6	4.2
	어머니	67 (6.1)				14.9	17.9	26.9	40.3	0
	기타	69 (6.3)				11.6	13.0	15.9	58.0	1.4

\* P<0.05    \*\* P<0.01    \*\*\*\* P<0.001

전체적인 반응경향은 <표 7>에서 나타나듯이 ① 상표(7.0%) ② 모양(17.5%) ③ 가격(21.4%) ④ 품질(50.5%) ⑤ 기타(3.6%)로 상표, 모양, 가격에 우선하여 품질에 기준을 둔다는 반응이 50.5%였고, 품질 다음으로 가격, 모양, 상표에 기준을 두어 구입한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학년별 변인에서  $P<0.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5학년이 6학년보다 품질을 우선한다는 반응이 높았으며 가격이나 모양에 기준을 둔다는 응답은 5학년보다 6학년의 반응이 높게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상품을 선택할 때 다양하게 기준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서  $P<0.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53%)이 여학생(48.1%)보다 품질을 중시하였고 모양면에서는 여학생(22.7%)이 남학생(12.3%)보다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즉 상품을 구입할 때 여학생은 모양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을 나타내었다. 생활정도별에서 여유없는 계층(하류층)의 학생들은 품질 37.4%, 가격 33.9%에 기준을 둔다고 응답한 데 비해 여유있는 계층(상류)의 학생들은 품질 52.3%, 가격 19.9%에 기준을 둔다고 하여 가정의 생활정도와 상품구입시 선택의 기준에 차이가 있어 특기할만 하였으며  $P<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책임별로는  $P<0.05$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부모 맞벌이인 경우 품질 51.6%, 가격 20.7%인데 어머니 혼자 책임진 가정의 학생들은 품질 40.3%, 가격 26.9%로 맞벌이 하는 가정의 학생들보다 가격을 중시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거주지별, 보호자 직업별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선전에 의한 상품의 질에 대한 인식

광고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의 어린이들은 특히 TV매체에 의한 선전

<표 8> 선전에 의한 상품의 질에 대한 인식

변인	변 구 분	변인 구성비 (%)	x <sup>2</sup>	df	유의 도	반 응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094 (100)				5.7	34.8	26.6	25.9	7.0
성  별	남	551 (50.4)	13.818	4	***  0.001	8.0	33.6	27.8	23.6	7.1
	여	54.3 (49.6)				3.3	36.1	25.4	28.2	7.0
거 주 지 별	제주시	285 (26.1)	36.445	12	*****  0.000	3.2	36.5	25.6	29.8	4.9
	서귀포시	276 (25.2)				7.6	27.2	30.8	23.9	10.5
	남제주군	268 (24.5)				5.6	34.7	24.3	30.9	4.5
	북제주군	265 (24.2)				6.8	41.9	24.5	19.2	7.5

\*\*\* P<0.005

\*\*\*\*\* P<0.001

으로 상품에 대한 지식을 얻기도 하고 충동구매를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선전에 의한 상품의 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선전하는 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더 믿을 수 있다는 말에 찬성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표 8>과 같은데 ① 매우 찬성한다(5.7%) ② 조금 찬성한다(34.8%) ③ 모르겠다(26.6%) ④ 조금 반대한다(25.9%) ⑤ 매우 반대한다(7.0%)로 찬성한다는 입장이 40.5%, 반대한다는 입장이 32.9%를 보여 선전에 의한 상품의 신뢰

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에서 선전과 상품의 질과의 관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남학생 30.7%, 여학생 35.2%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부정적인 면을 보이며  $P<0.0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별로는  $P<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선전하는 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믿을 수 있다는 말에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의 순서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시 거주 아동보다 군 거주 아동이 선전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3)백화점 상품과 일반 시장 상품에 대한 인식

일부 백화점의 변칙 판매행태 혹은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여론이 가끔 논의될 때도 있지만 전통적인 시장보다 백화점 상품의 매출액은 꾸준히 신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백화점 상품과 일반시장 상품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백화점의 상품이 일반시장의 상품보다 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표 9>와 같은데 ① 확실히 그렇다(5.9%) ② 대체로 그렇다(41.1%) ③ 모르겠다(18.3%)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23.1%)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5%)로 일반시장 상품보다는 백화점의 상품의 질이 더 좋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학년별에서 5학년보다 6학년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에서는 남학생45%, 여학생 49.2%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백화점 상품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별로는  $P<0.005$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서귀포시 학생들이 50.8%로 백화점 상품의 질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

주시 거주 학생들의 순서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표 9> 백화점 상품과 일반 시장 상품에 대한 인식

변인	변 구 인 분	변인 구성비 (%)	x <sup>2</sup>	df	유의 도	반 응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094 (100)				5.9	41.1	18.3	23.1	11.5
학 년 별	5	555 (50.7)	15.845	4	*** 0.003	8.1	38.0	20.5	22.9	10.5
	6	539 (49.3)				3.7	44.3	16.0	23.4	12.6
성 별	남	551 (50.4)	14.896	4	** 0.005	8.0	37.0	18.9	23.0	13.7
	여	543 (49.6)				3.9	45.3	17.7	23.2	9.9
거 주 지 별	제주시	285 (26.1)	29.725	12	*** 0.003	5.6	36.1	14.4	30.9	13.0
	서귀포시	276 (25.2)				6.2	44.6	15.9	19.9	13.4
	남제주군	268 (24.5)				5.9	40.7	19.4	25.7	8.9
	북제주군	265 (24.2)				6.4	43.0	24.2	16.2	10.2

\*\* P<0.01      \*\*\* P<0.005

#### 4) 고가품에 대한 인식

가격이 비싼 상품은 가격이 싼 상품보다 질이 좋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가격이 비싼 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표 10>과 같다. ① 확실히 그렇다(5.5%) ② 대체로 그렇다(31.9%) ③ 모르겠다(13.5%)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30.6%) ⑤ 전혀 그렇지 않다(18.5%)로 그렇다(37.4%)라는 반응보다 그렇지 않다(49.1%)라는 반응이 더 많았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학년별에서  $P<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5학년 55.2%, 6학년 47.7%로 가격이 비싼 상품이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질이 좋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것을 <표 7>의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물건의 어떤점에 기준을 두어 구입합니까?’ 라는 질문의 응답과 연관시켜 보았을때 5학년은 상품을 고를때 고가품이 아니더라도 품질을 우선하여 선택하겠다는 경향이 6학년보다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생활정도별에서는  $P<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며 여유있는 계층(상류층)의 학생일수록 고가품이 상품의 질이 더 좋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5)수입품과 국산품의 질 비교

UR의 영향으로 인한 외국상품의 범람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외제상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은 국산품보다 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10> 고가품에 대한 인식

변인	변 구 인 분	변인 구성비 (%)	x <sup>2</sup>	df	유의 도	반 응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094 (100)				5.5	31.9	13.5	30.9	18.5
학 년 별	5	555 (50.7)	28.451	4	**** 0.000	4.3	25.6	15.0	33.2	22.0
	6	539 (49.3)				6.7	38.4	12.1	28.0	14.8
생 활  정 도 별	매우 여유있음	107 (9.8)	28.567	16	* 0.027	4.7	32.7	12.1	26.2	24.3
		310 (28.3)				8.4	31.8	13.5	26.5	20.3
	여유있음 보통	562 (51.4)				3.7	33.8	14.4	32.6	15.5
	조금 어려움	102 (9.3)				7.8	23.5	9.8	34.3	24.5
	매우 어려움	13 (1.2)				0	23.1	15.4	52.8	7.7

\* P<0.05      \*\*\* P<0.0001

전체적인 반응경향은 <표 11> 과 같다. ①확실히 그렇다(4.6%) ② 대체로 그렇다(18.9%) ③ 모르겠다(15.1%)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27.6%) ⑤ 전혀 그렇지 않다(33.8%)로 수입품이 국산품보다 질이 좋다는 데 23.5%, 그렇지 않다는데 61.4%의 반응을 보여 수입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나, 국민학생의 상당수가 수입품을 선호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표 11>수입품과 국산품의 질 비교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 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94 (100)				4.6	18.9	15.1	27.6	33.8
거주지 별	제주시	285 (26.1)	47.999	12	**** 0.000	5.3	18.3	13.7	33.3	29.5
	서귀포시	276 (25.2)				5.1	25.0	13.4	24.6	31.9
	남제주군	268 (24.5)				2.9	12.4	10.4	29.1	45.1
	북제주군	265 (24.2)				5.3	18.5	22.6	23.4	30.2
보호자 직업 별	공무원	144 (13.2)	47.024	20	*** 0.001	5.6	20.1	16.7	29.2	28.5
	회사원	151 (13.8)				6.6	18.5	10.6	29.8	34.4
	서비스업	176 (16.1)				2.3	26.1	13.6	29.0	29.0
	감귤과수원	290 (26.5)				3.8	11.4	14.1	29.3	41.4
	일반농·어업	98 (9.0)				4.1	14.3	26.5	18.4	36.7
		기타				235 (21.5)	5.5	24.3	14.5	26.0

\*\*\* P <0.005      \*\*\*\* P<0.001



배경변인별로 보면 거주지별 변인에서  $P < 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남제주군 74.2%, 제주시 62.8%, 서귀포시 56.5%, 북제주군 53.6%의 순서로 수입품의 품질이 더 좋을 것이라는 데 반대입장을 보임으로써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학생들은 수입품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차이의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감귤과수원 70.7%, 회사원 64.2%, 서비스업 58%, 공무원 57.7%, 일반농·어업 55.1%의 순서로 수입품이 국산품보다 질이 좋을 것이라는 데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 외의 변인에서는 유사한 반응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 6) 유명상표에 대한 인식

요즈음 국민학생들까지 근검 절약하는 태도가 희박해지고 유명상표나 외제상품에 대한 기성세대의 선호경향이 과급되어 과소비 풍조를 조장시킨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학생들의 유명상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기업의 유명상표가 붙은 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표 12>와 같다. ① 확실히 그렇다(11.1%) ② 대체로 그렇다(40.4%) ③ 모르겠다(19%)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18.9%) ⑤ 확실히 그렇지 않다(10.6%)로 51.5%가 대기업의 유명상표가 질이 좋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9.5%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경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5학년보다는 6학년이 대기업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생활정도별로는 상류층 55.1%, 중류층 50.9%, 하류층 40.8%로 상류층 학생들이일수록 대기업 제품의 유명상표에 대해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2> 유명상표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 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094 (100)				11.1	40.4	19.0	18.9	10.6

## 2. 저축 및 절약 태도

국민경제에 있어서 소비와 지출은 최종적인 구매 가운데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sup>23)</sup>, 수지에 맞는 소비생활과 적자 없는 가계를 위해 저축 및 절약 태도는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축 및 절약 태도에 대한 국민학생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학용품분실시의 태도와 용돈마련 방법, 학용품 재사용 태도, 저축 여부, 저축 태도, 용돈에 대한 인식 등 여섯 가지로 조사, 분석하였다.

### 7) 학용품 분실시의 책임

학용품 분실시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에서 학用品을 잃어 버렸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표 13>과 같다.

23)조 순(1979),『經濟學原論』, 法文社, p. 464.

<표 13> 학용품 분실시의 태도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94 (100)				2.8	2.7	44.4	46.4	3.6
생활 정도 별	매우 여유있음	107 (9.8)	52.128	16	**** 0.000	6.5	3.7	35.5	52.3	1.9
	여유있음	310 (28.3)				3.2	3.2	40.6	49.7	3.2
	보통	562 (51.4)				2.0	2.7	48.9	43.1	3.4
	조금 어려움	102 (9.3)				2.0	0	42.2	52.0	3.9
	매우 어려움	13 (1.2)				7.7	7.7	30.8	23.1	30.8

\*\*\*\* P<0.00

① 새 것을 사면 되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2.8%) ② 나의 잘못이고 부끄러운 일이기에 모른척 한다(2.7%) ③ 나 혼자 찾아 보다가 없으면 그만둔다(44.4%) ④ 친구와 함께 찾는다(46.4%) ⑤ 선생님께 꼭 찾아달라고 부탁한다(3.6%)로 응답하였다. 즉 혼자 찾는 경우보다는 친구와 함께 찾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꼭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3.6%로 반응이 낮았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생활 정도에서 P<0.001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찾지 않는 경우가 여유있는 계층(상류층) 7.5%, 보통(중류층)4.7%, 여유없

는 계층(하류층) 3.5%로 상류층의 학생들일수록 물건을 소중히 하는 의식이 낮음을 나타냈다. 그 외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성별에서 '새 것을 사면 되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와 '나의 잘못이고 부끄러운 일이지 모르니까 한다'의 반응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학용품 관리 의식이 남학생일수록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별로도 찾지 않는 경우가 서귀포 7.2%, 남제주군 5.5%, 북제주군 5.3%, 제주시 4.2%의 순서로 나타났다.

#### 8) 용돈 마련 방법

학생들의 용돈마련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은 용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반응은 <표 14>와 같다.

① 부모님께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쓴다(48.7%) ② 일주일에 한번씩 타서 쓴다 (20%) ③ 한달에 한번씩 타서 쓴다 (11.1%) ④ 부모님 심부름을 해서 받는다 (9.9%) ⑤ 기타 (10.3%)로 약 반 정도가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쓴다고 응답했고 스스로 노력하여 얻는 경우는 10%에 불과하였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학년별에서  $P<0.05$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6학년이 '부모님께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쓴다'에 51.2%, 5학년은 46.3%로 6학년이 그때 그때 타서 쓴다는 반응이 높았고, 부모님 심부름을 해서 받는 경우는 5학년 10.6%, 6학년 9.1%로 용돈 마련하는 태도에서 5학년이 더 바람직하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P<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쓴다는데 반응이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P<0.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남제주군과 서귀포시 거주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고 한달에 한번씩 타서 쓰는 학생은 제주시 17.5%, 서귀포시 10.9%, 북제주군 10.6%, 남제주군 4.1%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표 14> 용돈 마련 방법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 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94 (100)				48.7	20.0	11.1	9.9	10.3
학년 별	5	555 (50.7)	10.398	4	* 0.034	46.3	22.7	9.2	10.6	11.2
	6	539 (49.3)				51.2	17.3	13.0	9.1	9.5
성 별	남	551 (50.4)	16.203	4	*** 0.003	45.0	20.5	10.9	9.8	13.8
	여	543 (49.6)				52.5	19.5	11.2	9.9	6.8
거주지 별	제주시	285 (26.1)	35.162	12	*** 0.000	43.2	20.0	17.5	10.5	8.8
	서귀포시	276 (25.2)				50.0	16.7	10.9	8.7	13.8
	남제주군	268 (24.5)				52.9	20.5	4.1	12.3	10.1
	북제주군	265 (24.2)				49.1	23.8	10.6	8.3	8.4
경제적 책임 별	아버지	261 (23.9)	24.610	12	* 0.017	44.4	21.8	16.5	8.0	9.2
	부모	697 (63.7)				50.4	20.1	9.6	10.8	9.2
	어머니	67 (6.1)				46.3	14.9	9.0	9.0	20.9
	기타	69 (6.3)				50.7	17.4	7.2	8.7	15.9
보호자 직업 별	공무원	144 (13.2)	42.212	20	*** 0.003	40.3	19.4	18.1	10.4	11.8
	회사원	151 (13.8)				45.7	17.2	17.2	11.3	8.6
	서비스업	176 (16.1)				46.6	23.9	13.1	5.7	10.8
	감귤과수원	290 (26.5)				54.8	16.6	4.8	12.8	11.0
	일반농·어업	98 (9.0)				52.0	21.4	8.2	11.2	7.1
	기타	235 (21.5)				48.5	23.0	10.2	7.7	10.6

\* P<0.05    \*\* P<0.01    \*\*\* P<0.005    \*\*\*\* P<0.001

경제적 책임별로는 부모 맞벌이인 학생들이 경우 '부모님께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쓴다'와 '부모님 심부름을 해서 받는다'에 50.4%, 10.8%의 반응을 보여 다른 학생들보다 많았고 아버지 혼자 돈을 벌어 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한달에 한번 타거나 일주일에 한번 타는 경우에 많이 응답하여 용돈마련이 계획적임을 나타내며  $P<0.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감귤과수원인 경우 '부모님께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쓴다'에, 서비스업인 경우 '일주일에 한번씩 타서 쓴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으며, 공무원인 경우 '한달에 한번씩 타서 쓴다', 감귤과수원인 경우 '부모님 심부름을 해서 받는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P<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활정도에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9)학용품 재활용 태도

자원의 재활용과 폐품의 이용은 환경오염의 방지와도 직접 관계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용품 재활용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은 한 학기가 끝나서 남은 공책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표 15>와 같은데 ① 항상 연습장을 만든다든가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61.2%) ② 가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재활용한다(11.0%) ③ 거의 그대로 버리는 편이다(18.1%) ④기타(9.8%)의 반응으로 72.2%의 학생들의 재활용한다는 입장이었고 그대로 버리는 학생도 18.1%나 되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P<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를 보이며 '항상 연습장을 만든다든가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에 5학년이 57.3%, 6학년이 65.1%의 응답을 하여 학년이 높을수록 재활용을 하고 있었다. 성별에서는  $P<0.001$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를 보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항상 연습장을 만든다든가 재활용한다'는 경향을 보여 여학생들이 자원 재활용

<표 15> 학용품 재활용 태도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 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1,094 (100)				61.2	11.0	18.1	9.8
학년 별	5	555 (50.7)	10.594	3	* 0.014	57.3	11.7	18.7	12.3
	6	539 (49.3)				65.1	10.2	17.4	7.2
성 별	남	551 (50.4)	29.773	3	**** 0.000	53.2	13.2	22.0	11.6
	여	543 (49.6)				69.2	8.7	14.2	7.9
거주지 별	제주시	285 (26.1)	22.591	9	** 0.006	64.6	11.2	16.1	8.1
	서귀포시	276 (25.2)				61.2	10.5	17.8	10.5
	남제주군	268 (24.5)				63.1	11.2	11.9	8.1
	북제주군	265 (24.2)				54.7	11.3	26.0	7.9

\* P<0.05 \*\* P<0.01 \*\*\*\* P<0.001

의식이 강함을 나타내었다. '거의 그대로 버리는 편이다.'라는데도 여학생은 14.2%인데 남학생이 22%로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의식이 남학생이 회박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거주지역별로는 P<0.01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를 보이며, 제주시 학생들은 재활용한다는데 높은 반응을 보였고 북제주군

학생들은 거의 그대로 버린다는데 26%의 반응으로 낭비적인 태도를 보였다.

생활정도별, 경제적 책임별, 보호자 직업별 변인에서는 유의있는 차를 보이지 않았다.

#### 10)저축 여부

어렸을 때의 저축태도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축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표 16>에서 나타나듯이 ① 그때마다 꼬박꼬박 부모님께 타서 저축한다. (22.5 %) ② 가끔 부모님께 타서 저축한다 (32.5 %) ③ 가끔 내 용돈에서 저축할 때도 있다(22.7 %) ④ 내 용돈을 아껴 저축할 때가 많다(8.9 %) ⑤ 거의 저축하지 않는다(13.4 %)의 반응으로 저축하지 않는 학생들이 13.4 %를 보인 반면, 부모님께 의지하여 저축하는 경우는 55 %, 용돈을 아껴서 저축하는 경우가 31.6 %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저축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86.6 %에 해당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에서  $P<0.005$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내 용돈을 아껴서 저축할 때가 많다'에 남학생 7.6%, 여학생 10.1%의 응답을 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스로 저축하는 경향을 보였고 저축하지 않는 학생들은 여학생 9.4 %, 남학생 17.4 %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저축하지 않고 있었다.

거주지별로 보면 '가끔 내 용돈에서 저축할 때도 있다'와 '내 용돈을 아껴서 저축할 때가 많다'에 제주시, 남제주군, 서귀포시, 북제주군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저축하지 않는 경우는 북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의 순서로 응답하여 북제주군이 저축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P<0.0001$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16> 저축 여부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 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94 (100)				22.5	32.5	22.7	8.9	13.4
성 별	남	551 (50.4)	17.998	4	** 0.001	21.4	33.0	20.5	7.6	17.4
	여	543 (49.6)				23.6	32.0	24.9	10.1	9.4
거 주 지 별	제주시	285 (26.1)	35.981	12	**** 0.000	19.3	25.6	25.3	13.3	16.5
	서귀포시	276 (25.2)				23.6	38.8	21.0	5.4	11.2
	남제주군	268 (24.5)				23.1	32.1	27.2	8.6	8.9
	북제주군	265 (24.2)				24.2	32.8	17.7	8.3	17.0
생 활 정 도 별	매우 여유있음	107 (9.8)	26.406	16	* 0.049	32.7	28.0	24.3	6.5	8.4
	여유있음	310 (28.4)				22.3	34.5	24.2	9.0	10.0
	보통	562 (51.4)				19.4	33.8	21.4	10.0	15.5
	조금 어려움	102 (9.3)				30.4	25.5	22.5	4.9	16.7
	매우 어려움	13 (1.2)				15.4	23.1	30.8	7.7	23.1
경 제 적 책 임 별	아버지	261 (23.9)	25.551	12	* 0.012	22.6	31.8	20.3	14.2	11.1
	부모	697 (63.7)				23.2	33.4	22.8	7.0	13.5
	어머니	67 (6.1)				26.9	28.3	20.9	4.5	19.4
	기타	69 (6.3)				10.1	30.4	31.9	11.6	15.9

\* P<0.05 \*\*\* P<0.005 \*\*\*\* P<0.0001

생활정도별로는  $P<0.05$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여유있는 계층(상류층)의 학생들 90.4 %가 저축하고 있는데 비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82.6%만이 저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용돈을 아껴서 저축한다는 응답은 여유있는 계층(상류층)32.6%, 보통(중류층)31.4%, 여유없는 계층(하류층)28.7%여서 상류층의 학생일수록로 갈수록 용돈에서 저축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축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하류층의 학생일수록 높은 반응을 보여 생활정도에 따른 저축경향에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책임별로는 용돈에서 저축하는 경우가 아버지, 부모 맞벌이, 어머니 혼자 혼자의 순서로 응답하였고 '거의 저축하지 않는다'는 어머니 혼자, 부모 맞벌이, 아버지의 순서로 응답하여  $P<0.05$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 보호자 직업별로는 유의있는 수준의 차이가 없었다.

#### 11) 저축 태도

생활정도의 향상으로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이외의 돈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의 적절한 사용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한 문항으로 "손님이 오셔서 돈 만원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표 17>에서 나타나듯이 ① 모두 저축하도록 하겠다(30.6 %) ②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을 사도록 하겠다(20.9 %) ③ 부모님께 그냥 드리도록 하겠다(35.4 %) ④ 전자 오락실에 간다든지 친구들과 같이 쓰겠다(1.7%) ⑤ 기타 (11.3 %)의 반응을 보였다.

변인별로 보면 거주지별로는  $P<0.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며 저축하겠다는 응답이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시의 순서를 보여 제주시 학생들이 저축하려는 의지가 강했고 '전자오락실에 간다든지 친구들과 같이 쓰겠다'는 응답은 극히 낮게 나타나 바람직하였다.

경제적 책임별로는  $P < 0.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며, 아버지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학생들은 34.5 %, 부모 맞벌이인 학생들은 30.8%, 어머니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학생들은 22.4%가 저축하겠다고 응답했고 40.3 %는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응답하여 어머니 혼자 가계를 꾸려가는 가정의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함께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7> 저축 태도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 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94 (100)				30.6	20.9	35.4	1.7	11.3
거주지 별	제주시	285 (26.1)	34.241	12	*** 0.001	33.0	19.6	28.4	2.8	16.1
	서귀포시	276 (25.2)				27.5	24.6	33.7	2.2	11.9
	남제주군	268 (24.5)				32.8	18.8	35.1	1.1	11.2
	북제주군	265 (24.2)				29.4	19.2	44.9	0.8	5.7
경제적 책임 별	아버지	261 (23.9)	33.895	12	*** 0.001	34.5	24.9	28.4	2.7	9.6
	부모	697 (63.7)				30.8	19.8	37.7	1.4	10.2
	어머니	67 (6.1)				22.4	20.9	40.3	3.0	13.4
	기타	69 (6.3)				21.7	17.4	33.3	0	27.5

\*\*\*  $P < 0.005$

## 12) 용돈에 대한 인식

저축추진 중앙위원회에서는 해마다 국민학교 학생들의 용돈기입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데 자기의 용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생활의 만족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자기의 용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표 18>에서 나타나듯이 ① 매우 만족한다(33.6%) ② 대체로 만족한다(35.2%) ③ 잘 모르겠다(11.7%) ④ 대체로 부족하다(13.3%) ⑤ 아주 부족하다(6.2%)로 만족한다는 입장이 68.8%였고 부족하다는 입장이 19.5%였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학년별에서  $P<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며 만족한다는 입장이 6학년 65.1%, 5학년 72.4%로 5학년이 6학년보다 용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P<0.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시의 순서를 보여 자신의 용돈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입장은 제주시 학생들이었고 서귀포시 학생들이 가장 부족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생활정도별로는 여유있는 계층(상류층)의 학생들의 75.3%가, 여유없는 계층(하류층)의 학생들은 53.9%만이 용돈에 대해 만족하다고 응답하여  $P<0.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생활정도에 따른 용돈의 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공무원, 서비스업, 일반 농·어업, 회사원, 감귤과수원의 순서로 만족한다는데 긍정적이었다. 부족하다는 입장은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 농·어업이 가장 적어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 경제적 책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8> 용돈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 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94 (100)				33.6	35.2	11.7	13.3	6.2
학 년 별	5	555 (50.7)	10.798	4	* 0.029	35.5	36.9	11.5	10.1	5.9
	6	539 (49.3)				31.7	33.4	11.9	16.9	6.5
거 주 지 별	제주시	285 (26.1)	40.314	12	**** 0.000	38.9	39.3	10.2	8.8	2.8
	서귀포시	276 (25.2)				29.7	32.9	9.1	17.8	10.5
	남제주군	268 (24.5)				32.1	36.6	16.4	10.4	4.5
	북제주군	265 (24.2)				34.0	31.7	12.5	15.5	6.4
생 활 정 도 별	매우 여유있음	107 (9.8)	57.154	16	*** 0.000	50.5	29.9	8.4	1.9	9.3
	여유있음	310 (28.3)				32.9	40.6	6.5	14.8	5.2
		보통				562 (51.4)	32.0	35.1	13.0	13.7
	조금 어려움	102 (9.3)				29.4	25.5	21.6	18.6	4.9
		매우 어려움				13 (1.2)	15.4	30.8	30.8	7.7
	보 호 자 직 업 별	공무원				144 (13.2)	37.599	20	** 0.009	32.6
회사원		151 (13.8)	33.8	33.8	13.9	11.9				6.6
서비스업		176 (16.1)	35.8	34.7	5.1	15.3				9.1
감귤과수원		290 (26.5)	28.3	35.5	15.5	13.8				6.9
		일반농어업	98 (9.0)	37.8	31.6	19.4				10.2
기타		235 (21.5)	37.4	34.0	9.8	14.0				3.8

\* P<0.05 \*\* P<0.01 \*\*\*\* P<0.0001

### 3. 직업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척도 중의 하나가 직업과 근로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직업관이란 개인이나 사회가 일(work) 또는 지위(status)에 대해 지니는 가치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직업생활은 경제생활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sup>24)</sup>

따라서 경제의식의 한 단면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에 대한 귀천, 직업선택의 기준, 선호하는 직업, 직장 취업시 결정사항, 고등학교 진학계획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다.

#### 13) 직업에 대한 귀천

최근에 어렵고 땀 흘리는 일을 기피하는 사회현상에 대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표 19>에서 나타나듯이 ① 확실히 그렇다(26.1%) ② 대체로 그렇다(25.9%) ③ 잘 모르겠다(33.4%)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8.4%) ⑤ 확실히 그렇지 않다(6.3%)로 귀천이 없다는 응답이 52%, 귀천이 있다는 응답이 14.7%였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학년별 변인에서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며 귀천이 있다는 응답이 5학년 14.4%보다 6학년 17.1%로 6학년 학생들이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데 높은 반응을 보였다.

---

24) 임천순·정태화·이광호(1990), 「청소년 경제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99.

<표 19> 직업에 대한 귀천

변인	변 구	인 분	변 인 구성비 (%)	$\chi^2$	df	유 의 도	반    응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094 (100)				26.1	25.9	33.4	8.4	6.3
학 년 별	5	555 (50.7)	12.342	4	* 0.015	23.8	27.6	36.2	7.9	4.5	
	6	539 (49.3)				28.4	24.1	30.4	8.9	8.2	
생 활  정 도 별	매    우 여유있음	107 (9.8)	48.884	16	**** 0.000	27.1	27.1	29.9	9.3	6.5	
	310 여유있음	(28.3)				25.8	28.7	29.4	9.0	7.1	
	562 보    통	(51.4)				26.0	25.3	36.3	7.5	5.0	
	102 조    금	(9.3)				28.4	22.5	31.4	11.8	5.9	
	13 매    우	(1.2)				7.7	0	46.2	0	46.2	
	13 어려움	(1.2)									
경 제 적  책 임 별	아버지	261 (23.9)	26.954	12	** 0.008	31.8	23.8	25.3	9.6	9.6	
	부모	697 (63.7)				23.8	26.0	36.9	8.0	5.3	
	어머니	67 (6.1)				22.4	35.8	23.9	10.4	7.5	
	기타	69 (6.3)				30.4	23.2	37.7	5.8	2.9	

\* P<0.05 \*\* P<0.01 \*\*\*\* P<0.0001

생활정도별로 보면 여유있는 계층(상류층) 54.4%, 보통(중류층) 51.3%, 여유없는 계층(하류층)이 46.1%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응답하여 상류층 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p<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책임별로는 부모 모두 맞벌이 하는 학생들(49.8%)이 타 아동에 비해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응답하여  $P<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 거주지별, 보호자 직업별로는 유의있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14)직업 선택의 기준

일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가치 기준은 보수, 대우 혹은 사회적 안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측면과 적성이나 자아실현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직업선택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경우 어느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반응경향은 <표 20>과 같은데 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직업(18.3%) ②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63.6%) ③ 승진하여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직업(5.9%) ④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직업(9.0%) ⑤ 기타 (3.1%)로 많은 돈이나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직업보다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소중히 한다는 반응이 강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생활정도별 변인에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여유있는 계층(상류층)의 학생들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계층은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 특이하였다. 승진과 권력에 의해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도 여유있는 계층(상류층)이 많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경제적 책임별에



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에 어머니 혼자 책임 맡고 있는 경우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다른 배경변인에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0> 직업 선택의 기준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 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94 (100)				18.3	63.6	5.9	9.0	3.1
생활 정도 별	매우 여유있음	107 (9.8)	41.334	16	** 0.001	33.6	52.3	8.4	4.7	0.9
	310 여유있음	(28.3)				17.7	59.7	8.1	11.0	3.5
	562 보통	(51.4)				15.8	66.7	4.4	9.4	3.6
	102 조금	(9.3)				18.6	70.6	5.9	3.9	1.0
	어려움	(9.3)				18.6	70.6	5.9	3.9	1.0
	매우 어려움	13 (1.2)				7.7	81.5	0	23.5	7.7

\*\*\* P<0.005

#### 15) 선호하는 직업

최근에는 3D 기피현상으로 인해 구직난과 구인난을 함께 겪음으로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고학력자의 실업이 문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똑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 어떤 직업을 택하겠습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21> 선호하는 직업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1094 (100)				49.4	9.8	27.5	13.3
성 별	남	551 (50.4)	30.785	3	**** 0.000	43.6	13.1	31.9	11.4
	여	543 (49.6)				55.2	6.4	23.0	15.3
거 주 지 별	제주시	285 (26.1)	17.319	9	* 0.044	50.9	8.8	29.1	11.2
	서귀포시	276 (25.2)				43.1	13.0	25.4	18.5
	남제주군	268 (24.5)				52.2	8.2	26.9	12.7
	북제주군	265 (24.2)				52.1	8.7	28.7	10.6
생 활  정 도 별	매우 여유있음	107 (9.8)	23.737	12	* 0.022	47.7	9.3	26.2	16.8
		310							
	여유있음	(28.3)				50.0	9.0	25.5	15.5
		562							
	보통	(51.4)				50.0	8.2	30.2	11.6
	조금 어려움	102 (9.8)				47.1	18.6	21.6	12.7
	매우 어려움	13 (1.2)				38.5	30.8	15.4	15.4

\* P<0.05 \*\*\*\* P<0.001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표 21>에서 보듯이 ① 정신노동을 주로 하는 직업(49.4%) ②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업(9.8%) ③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27.5%) ④ 기타(13.3%)의 입장을 보여 약 50%의 학생들이 정신노동을 선호하고 있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에서 정신노동에 남학생이 43.6%, 여학생이 55.2%의 반응을 보였고 육체노동에 남학생이 13.1%, 여학생이 6.4%의 반응을 보여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정신노동을 더 선호하고 있어서  $P<0.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별로는  $P<0.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남제주군, 북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의 순서로 정신노동을 선호하여 군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시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정신노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생활정도에서는  $P<0.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육체노동을 주로하는 직업에 여유없는 계층(하류층)의 학생들이 20%로 여유있는 계층(상류층)9.1%, 보통(중류층)8.2%보다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 16) 직장 취업시 중요 요소

직장 취업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소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반응을 알아 보기 위하여 “직장에 취업할 때 다음 사항 중 어느 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표 22>와 같은데 ① 최종학력(11.3%) ② 최종학교 성적(9.8%) ③ 친척이나 부모의 도움(3.1%) ④ 인상이나 생김새(2.0%) ⑤ 열심한 자세(73.8%)의 입장을 보여 본인의 노력하는 자세가 최종학력이나 학교 성적, 부모의 도움이나 인상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앞에서 직업을 선택할 경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택하겠다는 반응이 63.3%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거나 승진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던 것과도 같은 견해로 해석된다.

<표 22> 직장 취업시 중요 요소

변인	변 구 분	변 인 구성비 (%)	$\chi^2$	df	유 의 도	반    응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094 (100)				11.3	9.8	3.1	2.0	73.8
학 년 별	5	555 (50.7)	10.704	4	* 0.030	11.7	12.3	3.8	2.0	70.3
	6	539 (49.3)				10.9	7.2	2.4	2.0	77.4
보 호 자  직 업 별	공무원	144 (13.2)	34.386	20	* 0.024	13.9	6.9	4.2	3.5	71.5
	회사원	151 (13.8)				15.9	11.3	2.0	2.6	68.2
	서비스업	176 (16.1)				9.7	6.3	1.1	0	83.0
	감귤과수원	290 (26.5)				10.0	11.0	4.8	6.4	72.8
	일반농어업	98 (9.0)				13.3	11.2	5.1	5.1	65.3
	기타	235 (21.5)				8.9	11.1	1.7	1.7	76.6

\* P<0.05

### 17)고등학교 진학계열

사회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국민학생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은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어느 계열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길 원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표 23>과 같은데 ① 대학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인문계 (80.9 %) ②산업발전에 직접 이바지할 수 있는 실업계 (19.1 %)의 반응을 보여 대다수가 실업계 고등학교보다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학을 원하고 있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내실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고 대학이 학문연구의 성격보다 취업기관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을 생각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취업의 문이 대폭 커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학년별 변인에서  $P<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인문계를 선호하는 학생이 5학년이 77.8 %인데 6학년은 84%로 고학년일수록 인문계를 선호했고, 성별 변인에서는  $P<0.001$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 75.3 % 여학생 86.6 %로 여학생이 인문계 진학을 더 원하고 있었다. 즉 6학년 여학생이 인문계 진학을 더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거주지별 변인에서는 인문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북제주군(83.8 %), 서귀포시(83.3%), 제주시(81.1 %), 남제주군(73.9 %)의 순서로  $P<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고, 경제적 책임별 변인에서는 아버지인 경우가 85.8 %로 가장 인문계 진학을 원했으며 어머니 혼자 책임맡고 있는 경우가 73.1 %로 가장 낮게 응답하여  $P<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23> 고등학교 진학계열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전체	1,094 (100)				80.9	19.1
학년 별	5	555 (50.7)	6.420	1	* 0.011	77.8	22.2
	6	539 (49.3)				84.0	16.0
성 별	남	551 (50.4)	21.629	1	**** 0.000	75.3	24.7
	여	543 (49.6)				86.6	13.4
거주지 별	제주 시	285 (26.1)	9.159	3	* 0.027	81.1	18.9
	서귀포시	276 (25.2)				83.3	16.7
	남제주군	268 (24.5)				73.9	26.1
	북제주군	265 (24.2)				83.8	16.2
경제적 책임 별	아버지	261 (23.9)	8.965	3	* 0.029	85.8	14.2
	부모	697 (63.7)				80.5	19.5
	어머니	67 (6.1)				73.1	26.9
	기타	69 (6.3)				85.8	14.2
보호자 직업 별	공무원	144 (13.2)	11.789	5	* 0.038	83.3	16.7
	회사원	151 (13.8)				84.8	15.2
	서비스업	176 (16.1)				86.4	13.6
	감귤과수원	290 (26.5)				80.3	19.7
	일반농·어업	98 (9.0)				73.5	26.5
	기타	235 (21.5)				76.6	23.4

\* P<0.05      \*\*\*\* P<0.001

보호자 직업별 변인에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서비스업이 86.4 %가 인문계 진학을 희망했고 일반 농,어업이 73.5 %로 가장 낮은 인문계 진학을 희망했다. 즉,보호자 직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회사원, 공무원, 감귤과수원, 일반 농,어업 순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다. 생활정도별 변인에서는 유의있는 수준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4.경제 자립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청소년들은 평소는 물론 방학 기간동안 자신들의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생산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당연히 되어 있으며 아무리 가정이 부유하더라도 대학의 학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 한도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러한 면이 오히려 나약하고 의존적인 성격을 조장시키고 사회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학생이 부모에 대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의존하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해 보는 일이 바로 이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자립심 정도를 나타내 주는 한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학생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경제의식 중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는 일은 경제생활의 또 다른 중요한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하여준다. 이러한 인식하에 경제적 면에서 부모의 책임 한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 18) 경제적 면에서 부모의 책임 한계

“부모는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표 24>와 같다.

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35%) ②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24.3%) ③ 취직할 때까지(14.1%) ④ 결혼할 때까지(12.9%) ⑤ 결혼 이후라도 사정에 따라(13.7%)의 반응을 보였는데 학교를 졸업하고서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12.9%나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결혼 이후라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의존해야 한다는 어린이가 13.7 % 나 된다고 응답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의존도가 높다는 인상을 주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거주지별 변인에서  $P<0.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며 결혼 이후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반응이 서귀포시 18.5%, 제주시 13 %, 북제주군 12.5 %, 남제주군 9.7 %로 서귀포시의 학생들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 남군 학생들은 낮은 반응으로 자립심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생활정도별 변인에서는  $P<0.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며 결혼 이후라도 의지하겠다는 반응이 여유있는 계층(상류층)18.2%, 보통(중류층)10.5 %, 여유없는 계층(하류층)13%의 반응을 보여 상류층의 학생들이 하류층의 학생들보다 의존도가 높았다. 보호자 직업별 변인에서는  $P<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며 서비스업, 공무원, 회사원, 일반 농,어업, 감귤 과수원 순으로 부모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성별, 경제적 책임별 변인에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4> 경제적 면에서 부모의 책임 한계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sup>2</sup>	df	유의 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94 (100)				35.0	24.3	14.1	12.9	13.7
거주지 별	제주시	285 (26.1)	32,412	12	*** 0.001	34.4	25.6	12.6	14.4	13.0
	서귀포시	276 (25.2)				36.6	21.0	12.3	11.6	18.5
		268 (24.5)				36.2	26.5	20.1	7.5	9.7
		265 (24.2)				32.8	24.5	12.1	18.1	12.5
생활 정도 별	매우 여유있음	107 (9.8)	36,529	16	*** 0.002	43.0	20.6	12.1	14.0	10.3
		310								
	여유있음	(28.3)				34.2	21.0	11.3	12.6	21.0
		562								
	보통	(51.4)				34.5	26.5	15.7	12.8	10.5
	조금 어려움	102 (9.3)				35.3	24.5	17.6	11.8	10.8
	매우 어려움	13 (1.2)				7.7	38.5	0	23.1	30.8
보호 자 직 업 별	공무원	144 (13.2)	37,527	20	* 0.010	30.6	25.0	15.3	12.5	16.7
		151								
	회사원	(13.8)				44.4	20.5	10.6	9.3	15.2
	서비스업	176 (16.1)				34.7	22.2	14.2	10.8	18.2
	감귤과수 원	290 (26.5)				37.2	26.6	17.2	10.7	8.3
		98								
	일반농어 업	(9.0)				32.7	28.6	15.3	14.3	9.2
		235 (21.5)				30.2	23.4	11.1	19.1	16.2
	기타									

\* P<0.05      \*\*\* P<0.005

## 5.경제 현실

국민학생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전반적인 주변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현실을 보는 눈이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의 한 측면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의 생활수준, 노력과 성공의 관계, 가난의 책임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다.

### 19)가정의 생활 수준

자신이 처해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표 25>와 같다. ① 매우 만족스럽다(50.5 %) ② 약간 만족스럽다(19.3 %) ③ 그저 그렇다(17.8%) ④ 약간 불만스럽다(10%) · ⑤ 매우 불만스럽다(2.5 %)의 견해를 보였는데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69.8 %로 불만스럽다는 12.5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생활정도별에서 여유있는 계층(상류층)의 학생들이 만족 84%, 불만이 9.6%인데 여유없는 계층(하류층)의 학생들은 만족 46.9%, 불만 29.5%로 상류층 학생들은 하류층 학생들보다 절대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p<0.001$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 외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5> 가정의 생활 수준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sup>2</sup>	df	유의 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94 (100)				50.5	19.3	17.8	10.0	2.5
생활 정도	매우 여유있음	107 (9.8)	123.385	16	**** 0.000	78.5	8.4	4.7	4.7	3.7
	여유있음	310 (28.3)				60.6	19.7	9.7	8.4	1.6
	보통	562 (51.4)				45.2	20.1	23.7	9.3	1.8
	조금 어려움	102 (9.3)				23.5	23.5	24.5	21.6	6.9
	매우 어려움	13 (1.2)				15.4	30.8	15.4	30.8	7.7

\*\*\*\* P<0.001

## 20) 노력과 성공의 관계

한국교육개발원이 1990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 전체 집단의 과반수 이상인 56%가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볼 수 있었다.

제주도 국민학생들의 노력과 성공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표 26>과 같다.

<표 26> 노력과 성공의 관계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sup>2</sup>	df	유의 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94 (100)				53.6	27.2	9.0	5.6	4.6
성   별	남	551 (50.4)	11.286	4	* 0.024	54.1	24.7	11.6	5.1	4.5
	여	543 (49.6)				53.0	29.8	6.4	6.1	4.6
보호 자  직 업 별	공무원	144 (13.2)	37.852	20	** 0.009	62.5	19.4	6.9	6.3	4.9
	회사원	151 (13.8)				52.3	27.2	9.3	7.3	4.0
	서비스업	176 (16.1)				50.0	27.3	9.7	9.7	3.4
	감귤과수원	290 (26.5)				56.2	25.5	11.7	3.4	3.1
	일반농어업	98 (9.0)				53.1	22.4	11.2	6.1	7.1
	기타	235 (21.5)				48.5	36.2	5.5	3.4	6.4

\* P<0.05    \*\*\* P<0.01

① 확실히 그렇다(53.6%)    ② 대체로 그렇다(27.2%)    ③ 모르겠다(9%)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5.6%)    ⑤ 확실히 그렇지 않다(4.6%)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데 80.8%의 지지를 보냄으로서 절대적으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요행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거나 불로소득으로 인한 출세 현상이 만연했던 과거와 달리 제도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변인에서 P<0.05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 78.8%, 여학생 82.8%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여 남학생보다는 노력과 성공의 관계에 여학생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p<0.01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며, 공무원

과 감귤과수원이 가장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일반 농·어업이 가장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확실히 그렇다’의 응답에 6학년보다는 5학년이 긍정적이었으며 생활정도별에서는 상류층 57.3%, 중류층 52.7%, 하류층 44.3%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데 확신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21)가난의 책임

국민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난의 책임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으나 아직도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전체적인 반응은 <표 27>과 같다. ① 자기자신(44%) ② 자기가족(7.6%) ③ 자기의 조상이나 친척(23%) ④ 자기의 직장(2.2%) ⑤ 우리 국가(36.4%) ⑥ 기타(7.9%)의 견해를 보여 자기자신과 우리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거주지별로는 가난의 책임이 ‘자기 자신’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제주시와 남제주군이 가장 높아 47.4%의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이 북제주군 43%, 서귀포시가 가장 낮은 39.1%의 반응을 보였다.

가난의 책임이 ‘우리 국가’라고 응답한 경우가 북제주군 41.5%, 서귀포시 39.5%, 남제주군 32.5%, 제주시 31.2%의 순서로 응답하여 자기 외적인데서 원인을 찾은 경향은 북제주군의 학생들이 가장 높았다.

생활정도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유있는 계층(상류층)과 보통(중류층)의 학생들이 가난의 책임을 자기 내적인데서 찾는 경우가 45%인

<표 27> 가난의 책임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 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1,094 (100)				44.0	7.6	2.0	2.2	36.4	7.9
거주지 별	제주시	285 (26.1)	22.453	15	0.096	47.4	6.3	1.8	2.1	31.2	11.2
	서귀포시	276 (25.2)				39.1	7.9	2.2	2.5	39.5	8.7
	남제주군	268 (24.5)				47.4	9.3	2.2	1.5	32.5	7.1
	북제주군	265 (24.2)				43.0	7.2	1.9	2.6	41.5	3.8
생활 정도 별	매우 여유있음	107 (9.8)	27.823	20	0.114	38.3	9.3	0	4.7	39.3	8.4
	여유있음	310 (28.3)				47.7	7.4	1.9	1.6	35.8	5.5
	보통	562 (51.4)				45.0	7.3	2.0	2.3	34.2	9.3
	조금 어려움	102 (9.3)				37.3	6.9	3.9	1.0	44.1	6.9
	매우 어려움	13 (1.2)				7.7	15.4	7.7	0	61.5	7.7
경제적 책임 별	아버지	261 (23.9)	28.942	15	0.016	46.4	5.0	1.5	1.9	36.4	8.8
	부모	697 (63.7)				43.9	6.9	1.9	2.4	37.4	7.5
	어머니	67 (6.1)				32.8	19.4	1.5	1.5	35.8	9.0
	기타	69 (6.3)				46.4	13.0	5.8	1.4	26.1	7.2

\* P<0.05

데 비해 여유없는 계층(하류층)의 학생들이 33.9%로 응답하였고 그 대신 나라의 책임이라는데 여유없는 계층(하류층)의 학생들이 46.1%의 반응을 보여 특이했다.

경제적 책임별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며 자기자신의 책임이라는데 아버지 46.4%, 부모 맞벌이 43.9%, 어머니 32.8%의 순서로 응답하여 어머니 혼자 돈을 벌어 오는 학생들의 경우 자기의 책임이라는 면에서 가장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 6. 경제적 미래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더불어 세계에서 경제 성장이 제일 빠른 나라로 세계은행은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시장 기능과 통제기능이 합쳐진 혼합경제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sup>25)</sup>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가 선택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여러가지 특징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평한 기회, 본인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경제·사회적 보상, 그리고 자유롭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미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 경제전망, 빈부의 차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문항을 제시하였다.

### 22)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

---

25)宋炳洛(1990), 「韓國經濟論」, 박영사, p. 235.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들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자기가 희망하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반응경향은 <표 28>과 같이 ① 매우 자신 있다(28.5%) ② 어느정도 자신 있다(50.1%) ③ 잘 모르겠다(10.9%) ④ 조금 자신이 없다(7.9%) ⑤ 매우 자신이 없다(2.7%)의 응답으로 자신 있다는데 78.6%의 반응을 보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자신있다는 응답을 하여  $P<0.0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생활정도별로는  $P<0.001$ 의 유의있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며 아주 자신 있다는데 여유있는 계층(상류층)36.5%, 보통(중류층)24.2%, 여유없는 계층(하류층)20.9%의 경향을 보였다. 자신 없다는데 상류층 7.7%, 중류층 10.7%, 하류층 20%의 응답을 함으로써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여유있는 계층(상류층)의 학생일 수록 높게 나타났고 하류층의 학생일수록 자신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경제적 책임별로는  $P<0.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며 자신있다는 응답에 아버지, 부모 맞벌이, 어머니 혼자의 순서로 반응을 보였다.

### 23) 경제 전망

경제 전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 생각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28>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 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94 (100)				28.5	50.1	10.9	7.9	2.7
성 별	남	551 (50.4)	18.299	4	*** 0.001	32.3	44.3	12.7	7.4	3.3
	여	543 (49.6)				24.7	56.0	9.0	8.4	2.0
생 활 정 도 별	매우 여유있음	107 (9.8)	57.329	16	**** 0.000	48.6	36.4	6.5	4.7	3.7
	여유있음	310 (28.3)				32.3	51.0	9.4	4.5	2.9
	보통	562 (51.4)				24.2	52.8	12.3	8.7	2.0
	조금 어려움	102 (9.3)				23.5	46.1	11.8	13.7	4.9
	매우 어려움	13 (1.2)				0	53.8	15.4	30.8	0
경 계 적 책 임 별	아버지	261 (23.9)	32.649	12	*** 0.001	34.9	47.5	5.7	8.8	3.1
	부모	697 (63.7)				28.0	51.1	12.2	6.7	2.0
	어머니	67 (6.1)				23.9	53.7	7.5	10.4	4.5
	기타	69 (6.3)				14.5	46.4	20.3	13.0	5.8

\*\*\* P<0.005 \*\*\*\* P<0.001

전체적인 반응은 <표 29>와 같이 ① 지금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51%) ② 지금보다 조금 좋아질 것이다(28.5%) ③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7%) ④ 오히려 지금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9.6%) ⑤ 지금보다 대단히 나빠질 것이다(3.8%)로 좋아진다는데 79.5%의 응답을 내림으로써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5학년이 6학년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데 높게 반응하여  $P<0.001$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고, 6학년이 나빠질 것이라는 데 18.6%의 응답을 함으로써 5학년 8.4%보다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북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순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하여  $P<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활정도별로는  $P<0.001$ 의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며 여유있는 계층(상류층)의 학생일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했고 여유없는 계층(하류층)의 학생들은 65.2%만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른 배경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24) 빈부의 차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

국민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빈부의 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주변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차이가 너무 심해 사회문제가 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장래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반응은 <표 30>과 같이 ①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27%) ② 차이가 있으나 조금 줄어들 것이다(50.5%) ③ 지금과 마찬가지로일 것이다(8.2%) ④ 차이가 조금 심해질 것이다(7.6%) ⑤ 차이가 대단히 심해질 것이다(6.7%)로 차이가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는데 77.5%의 응답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29>경제 전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 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94 (100)				51.0	28.5	7.0	9.6	3.8
학 년 별	5	555 (50.7)	30.825	4	**** 0.000	56.6	28.5	6.5	5.2	3.2
	6	539 (49.3)				45.3	28.6	7.6	14.1	4.5
거 주 지 별	제주시	285 (26.1)	41.422	12	**** 0.000	47.0	34.7	6.7	9.1	2.5
	서귀포시	276 (25.2)				50.4	27.5	6.5	9.4	6.2
	남제주군	268 (24.5)				41.8	31.1	10.4	13.1	2.6
	북제주군	265 (24.2)				63.8	19.6	4.9	7.5	4.2
생 활  정 도 별	매우 여유있음	107 (9.8)	52.208	16	**** 0.000	63.6	24.3	2.8	4.7	4.7
	여유있음	310 (28.3)				56.8	29.0	4.5	7.1	2.6
		562 (51.4)				47.2	30.2	8.5	11.0	3.0
	보통 조금 어려움	102 (9.3)				42.2	22.5	8.8	14.7	11.8
	매우 어려움	13 (1.2)				46.2	23.1	23.1	7.7	0

\*\*\*\* P<0.001

<표 30> 빈부의 차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 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94 (100)				27.0	50.5	8.2	7.6	6.7
학년 별	5	555 (50.7)	47.796	4	**** 0.000	35.1	48.5	5.6	5.8	5.0
	6	539 (49.3)				18.6	52.7	10.9	9.5	8.3
생활 정도 별	매우 여유있음	107 (9.8)	43.027	16	**** 0.000	33.6	45.8	3.7	7.5	9.3
		310 (28.3)				26.1	56.5	6.1	5.2	6.1
	여유있음	562 (51.4)				24.4	50.9	9.1	9.3	6.4
	보통	102 (9.3)				36.3	40.2	10.8	6.9	5.9
	조금 어려움	13 (1.2)				30.8	15.4	38.5	0	15.4
	매우 어려움									
보호 자 직 업 별	공무원	144 (13.2)	39.503	20	** 0.006	28.5	53.5	6.9	4.2	6.9
	회사원	151 (13.8)				26.5	52.3	6.0	9.9	5.3
	서비스업	176 (16.1)				21.0	58.0	6.3	7.4	7.4
	감귤과수원	290 (26.5)				24.8	44.1	10.7	10.7	9.7
	일반농어업	98 (9.0)				39.8	38.8	9.2	8.2	4.1
		235 (21.5)				28.1	54.9	8.5	4.3	4.3
	기타									

\*\* P<0.01 \*\*\*\* P<0.001

---

배경변인별로 보면 학년별로는  $P < 0.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6학년 18.6%보다는 5학년이 35.1%로 빈부의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생활정도별로는  $P < 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차이가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는 반응에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의 순서로 응답하여 여유있는 계층(상류층)의 학생일수록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P < 0.01$ 의 유의한 차이에서 공무원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감귤과수원이 가장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성별, 거주지별, 경제적 책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의 학교 중 3개교씩 12개 학교 1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6개의 배경변인별로  $\chi^2$ 검증을 통해 유의도를 밝혔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와 관련된 경제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6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소비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상품을 선택할 때의 기준을 품질에 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모양을 중시한다는 경향이 높았으며 여유없는 계층(하류층)의 학생들은 가격과 품질에 기준을 둔다는 반응이 33.9%, 37.4%로 유사하게 나타나 여유있는 계층(상류층) 학생들의 19.9%, 52.3%와 큰 차이를 보였다.

선전에 의한 상품과 질에 대한 인식은 찬성한다는 입장(40.5%)이 반대한다는 입장(32.9%)보다 많았으며 백화점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시장 상품보다 믿을 수 있다는 경향을 보였다. 고가품의 질이 더 좋을 것이라는데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수입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남제주군 거주 학생들은 74.2%가 수입품의 질이 좋을 것이라는데 반대하여 북제주군의 53.6%보다 높았다. 유명상표에 대해서는 약 반 정도가 질이 좋을 것이라고 응답함으로써 그렇지 않다는 응답 29.5%보다 훨씬 높은 반응을 나타내어 대기업제품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저축과 절약에 관련된 경제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6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학용품을 분실하였을 경우 혼자 찾거나 친구와 함께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꼭 찾아보는 경우는 3.6%로 자신의 학용품에 대한 애착이 약했다. 용돈 마련 방법에서는 부모님 심부름을 해서 받는 학생

(9.9%)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부모님께 필요한 만큼 타서 쓴다고 응답했다. 학용품 재활용에서는 72.2%의 학생들이 재활용한다고 응답하여 고무적이었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재활용 의식이 희박하였다. 저축은 용돈을 아껴 저축하는 경우(31.6%)가 부모님께 의지하여 저축하는 경우(55%)보다 낮았다. 예기치 않은 돈이 생긴 경우 저축하겠다는 반응은 30.6%로 낮은 편이었으며 용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직업과 관련된 경제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5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직업에 대한 귀천에서는 귀천이 없다(52%)는 응답이 귀천이 있다(14.7%)는 응답보다 높았으며 하류층의 학생들일수록 귀천이 있다는데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직업선택의 기준에서는 많은 돈이나 명예보다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택하겠다는데 여유있는 계층의 학생일수록 높은 응답을 하였고, 선호하는 직업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육체노동이 아닌 정신노동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직장취업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소에 최종학력이나 성적보다는 열심한 자세를 선택하였으며 5학년보다 6학년이 더 높게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진학시 실업계(19.1%)보다 인문계(80.9%)진학을 원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경제적 책임을 어머니가 지고있는 학생들보다는 아버지가 지고있는 학생들이, 다른 직업보다는 서비스업의 학생들이 인문계 진학을 더 원하고 있었다.

넷째, 경제자립과 관련된 경제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책임에 대해 물은 결과 고등학교 졸업까지(35%), 대학 졸업까지(24.3%), 취직할 때까지(14.1%), 결혼할 때까지(12.9%), 결혼 이후라도 사정에 따라(13.7%)의 반응을 보였으며 남제주군 보다는 서귀포시가, 여유없는 계층(하류층)의 학생들보다는 여유있는 계층(상류층)의 학생들이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다섯째, 경제현실과 관련된 경제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3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경제적 견해를 알아 보았는데, 자신의 가정 생활 수준에 대한 반응은 만족스럽다는 반응(69.8%)이 불만스럽다는 반응(12.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여유있는 계층(상류층)의 학생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력과 성공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80.8%가 긍정적이었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보호자 직업별로는 공무원과 감귤과수원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가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항에서는 자기 자신(44%)과 우리 국가(36.4%)에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여유있는 계층(상류층)과 중류층의 학생들은 자기 내적인데서 가난의 책임을 찾는 경우가 여유없는 계층(하류층)의 학생들보다 높았으나 '우리 국가'라고 응답한 경우 하류층의 학생들이 46.1%의 견해를 보여 부정적이었다.

여섯째, 경제적 미래와 관련된 경제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3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경제적으로 미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 보았는데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자신이 있다는 반응이 78.6%로 긍정적이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신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생활정도별로는 여유있는 계층(상류층)의 학생일수록 자신있다고 했으나 여유없는 계층(하류층)의 학생일수록 자신 없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경제적 책임별로는 자신이 있다는 응답에 아버지, 맞벌이 부부, 어머니 혼자의 순서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경제전망'에서는 좋아질 것이라는데 79.5%의 응답을 내림으로써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학년이 6학년보다 좋아질 것이라는데 높게 반응하여 북제주군(83.4%), 제주시(81.7%), 서귀포시(77.9%), 남제주군(72.9)의 순서로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데 찬성하였다. 여유없는 계층(하류층)이 학생들은 65.2%만이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상류층 86.3%와 차이를 보였다. 빈부의 차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77.5%가 줄어든다고 응답하였으며 6학



년 18.6%보다는 5학년 35.1%가 빈부의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생활정도별로는 여유있는 계층(상류층)의 학생들이, 보호자 직업별로는 공무원의 학생들이 앞으로 빈부의 차가 없어질 것이라는 데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론을 토대로 학교 경제교육 및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 학교 경제교육도 아동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경제 현상을 제시하여 이들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품의 선택시 여학생이 품질 보다는 모양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고, 전체적으로 저축도 부모님께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도 높게 나타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이론교육의 강화가 실생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하여 사회·국가적 차원에서의 요구와 학습자의 관심, 욕구 발달 수준들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하겠다.

둘째, 학교 경제교육에서 소비자로서의 역할과 근검절약등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선진하는 상품일수록 질이 좋을 것이라는 견해가 반대하는 견해보다 많았고, 복제주군 거주 학생들의 반은 수입품의 질이 국산품보다 좋을 것이라고 하여 수입 개방화에 따른 바른 소비자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분실물을 찾는 경우도 소수에 불과하여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소비자를 양성시키는 경제교육이 요구된다.

셋째, 고등학교 진학시 실업계 진학(19.1%)보다 인문계 진학(80.9%)의 선호가 아주 높게 나타나 고학력 실업자의 양산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합리적인 생산활동의 참여를 통해 국가발전에 공헌하도록 하는 경제교육이 요구된다

넷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책임이 대학 졸업한 이후까지라도 연

장되어야 한다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가난의 책임이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이나 국가에 있다는 학생들에게, 국가 사회에 대한 요구 보다는 한 사람의 경제인으로서 책임을 강조하여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경제교육이 요구된다.

다섯째, 여유없는 계층의 학생들일수록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태도를 보여 이들에 대한 가치측면의 바람직한 경제교육이 요구된다.

여섯째, 국민학생들의 경제의식 습득의 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학교내 교육과정뿐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경제의식 형성 및 학습과정에 관한 탐색에도 강조점을 두어야 하겠다. 또한 경제의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다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의 수행으로 그 결과를 분석 자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다학습적인 접근 방법을 동원하여 수행하려는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참고 문헌

### <단행본>

- 곽병선 외 (1987),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사.
- 교육부(1993), 「국민학교 교육과정 연수자료」, 교육부.
- 權五翼 外(1984), 「經濟學大辭典」, 博英社.
- 宋炳洛(1990), 「韓國經濟論」, 博英社.
- 안청식·최일섭(1987), 「전후세대의의 가치관과 이념」, 집문당.
- 이재웅 외(1987), 「국민학교 교육과정 연수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임천순 외(1990), 「청소년 경제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천순 외(1990), 「경제교육내용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국교육개발원.
- 趙 淳(1979), 「經濟學原論」, 法文社.
- 趙英達(1992), 「韓國經濟教育의 實態 및 課題」, 국민경제연구소.
- 최병모(1992), 「경제교육」, 국민경제연구소.

### <논문>

- 姜泰準(1992), “國民學校學生의 經濟價值觀 研究,”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金正浩(1993), “濟州道 中學生의 經濟意識 調査,”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吳丙斗(1980), “高校生의 經濟意識에 관한 調査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정태(1992), “탐구학습 과정을 통한 경제개념, 원리 이해 및 사고력 신장을 위한 연구,” 국민경제연구소.
- 趙英達(1985), “民主市民 教育으로서의 經濟教育,” 「社會와 教育」제9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Summary>

## A Study on the Economy Consciousness of Elementary School in Cheju-do

Im, Young-Shin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Yong-Kyung**

Intent to provide some basic data required to identify the right direction for the econom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the author carried out a survey among the fifth and sixth graders in Chejudo to find out about their economic consciousness.

A total of 1,152 students in all the geographical areas of Chejudo including Cheju City, Sogwipo City, North Cheju County and South Cheju country were asked to answer 24 questions in the six areas: consumption, savings and frugality, occupation, economic self-reliance, economic reality and economic future. The following is a synopsis of the author's findings which have been carefully analyzed and verified in the  $\chi^2$  method.

---

\* A thesis submittee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4

First, in the area of consumption, 50.4%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quality was their top concern in choosing products. Those who chose appearances or prices as their top criteria were much fewer. This is a desirable pattern. Regarding the impact of advertisement, 40.5% of the respondents showed a positive impact of advertisement on their perspectives on the product quality. Goods in department stores were favored over those in other traditional shops. A majority do not believe that high prices should interpret into better quality or that imported goods are better than local products.

Second, in the area of savings and frugality, a mere 3.6% said that they bothered seriously to find their lost stationery. A majority try to find the lost stationery by themselves or ask their classmates to help rather than report to their teachers. Students who earn pocket money running errands are a minority. Girls are more frugal than boys in the use of stationery. 55% of the respondents ask for savings money of their parents. 68.8% are satisfied with the amount of their pocket money.

Third in the area of occupation, 52% believe that all jobs are equal. Students from poorer families do not agree to the concept as much as those from the other category. As for the criteria for job selection, students from rich families are more negative to the notion that psychological reward will be their top priority in the selection process. More girls than boys would like to choose white color jobs majoring in subjects of humanities. Many of the respondents believe that sincerity is more important in work places than either what school you attended or

---

what grades you got there.

Fourth, in the area of economic self-reliance, 35% of the respondents believe that parents should be responsible financially until one graduates from high school: 24.3% until one graduates colleges: 14.1% until one finds a job: 12.9% until one gets married; and 13.7% until one gets stable after marriage. There is a strong trend among student to continue to depend on their parents economically until after they are well grown up.

Fifth, in the area of economic reality - in which the author wanted to find out how the students viewed their own economic environment, 69.8% are satisfied with the current level of their families' living standards. 80.8% are positiv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 and hard work believing that hard work bring them opportunities for success. 44.4% think that party is the individuals' responsibility whereas 36.4% say that the government is to blame. Students from rich families are more inclined to blame the individuals for the situation.

Sixth, in the area of economic future, 78.6% have confidence in the jobs they plan to have. 79.5% have optimistic points of view on the future of the national economy. Students from rich families are more optimistic about improvements in the distribution of wealth. 35.1% of the fifth graders believe that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will narrow while only 18.6% of the sixth graders think so.

From the above results, the author would like to recommend the following:

First, given the rapidly changing economic situation, the economy

---

directly provided by school should present economic phenomena education related to the students' daily lives and request them to seek rational and logical improvements in the situation.

Second, the school economy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and become more practical encouraging a balanced view between consumption and savings emphasizing the value of frugality: the education should be able to lay strong foundation for savings-oriented economic behaviors of the populace. the right consumption pattern needs to be educated properly more than ever in the face of full market openings of Korea. student also should be encouraged to have stronger attachment to their belongings.

Third, a vast majority of respondents want to go to general high schools: only a fraction of the respondents would like to go to the special schools. The econom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needs to emphasize the value of making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direct participation in productive activities.

Fourth, given the fact that a majority of respondents believe that poverty should be blamed to the nation or parents, the education should stress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as the major entity of economic activities agains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 or society.

Fifth, more extensive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on the children's process of obtaining the economic consciousness to offer further basic data for the elementary school economy education.

## 국민학생의 경제 의식에 관한 질문지

이 질문지는 국민학생의 경제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표시한 것에는 맞고 틀린답이 없기 때문에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응답결과는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오직 학문 연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93. 1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임 영 신

☞ 물음의 내용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것을 골라 0표를 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에만 0표를 해야 합니다.

1.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물건의 어떤 점에 기준을 두어 물건을 구입합니까?

1)상표 (     )    2)모양(     )    3) 가격 (     )

4)품질 (     )    5)기타(     )

2.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선전하는 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더 믿을 수 있다” 는 말에 찬성합니까?

1)매우 찬성한다(     )    2)조금찬성한다(     )    3)모르겠다(     )

4)조금 반대한다(     )    5)매우 반대한다(     )



3. 여러분은 백화점의 상품이 일반 시장의 상품보다 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확실히 그렇다( ) 2)대체로 그렇다( )  
3)모르겠다( ) 4)대체로 그렇지 않다( )  
5)전혀 그렇지 않다( )
4. 가격이 비싼 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까?  
1)확실히 그렇다( ) 2)대체로 그렇다( ) 3)모르겠다( )  
4)대체로 그렇지 않다( ) 5)전혀 그렇지 않다( )
5.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은 국산품보다 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확실히 그렇다( ) 2)대체로 그렇다( )  
3)모르겠다( ) 4)대체로 그렇지 않다( )  
5)전혀 그렇지 않다( )
6. 대기업의 유명상표가 붙은 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확실히 그렇다( ) 2)대체로 그렇다( ) 3)모르겠다( )  
4)대체로 그렇지 않다( ) 5)전혀 그렇지 않다( )
7. 학교에서 학용품을 잃어 버렸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1)새것을 사면 되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 )  
2)나의 잘못이고 부끄러운 일이기에 모른척 한다( )  
3)나 혼자 찾아 보다가 없으면 그만둔다( )  
4)친구와 함께 찾는다( )  
5)선생님께 꼭 찾아 달라고 부탁한다( )

8. 여러분은 용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 1)부모님께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쓴다(    )
- 2)1주일에 한번씩 타서 쓴다(    )
- 3)1달에 한번씩 타서 쓴다(    )
- 4)부모님 심부름을 해서 받는다(    ) 5)기타(    )

9. 여러분은 한 학기가 끝나서 남은 공책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1)항상 연습장을 만든다든가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    )
- 2)가끔 부모님 말씀에 따라 재활용한다(    )
- 3)거의 그대로 버리는 편이다(    )
- 4).기타(    )

10. 여러분은 저축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 1) 그때마다 꼬박 꼬박 부모님께 타서 저축한다(    )
- 2)가끔 부모님께 타서 저축한다(    )
- 3)가끔 내용돈에서 저축할 때도 있다(    )
- 4)내 용돈을 아껴서 저축할 때가 많다(    )
- 5)거의 저축하지 않는다(    )

11. 손님이 오셔서 돈 만원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1)모두 저축하도록 하겠다(    )
- 2)평소 사고 싶은 것을 사도록 하겠다(    )
- 3)부모님께 그냥 드리도록 하겠다(    )
- 4)전자오락실에 간다던가 친구들과 같이 쓰겠다(    )
- 5)기타(    )

12. 현재 자신의 용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1)매우 만족한다(    )    2)대체로 만족한다(    )
- 3)잘 모르겠다(    )    4)대체로 부족하다(    )

- 5)아주 부족하다( )
13.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1)확실히 그렇다( ) 2)대체로 그렇다( )
- 3)잘 모르겠다( ) 4)대체로 그렇지 않다( )
- 5)확실히 그렇지 않다( )
14.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경우 어느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
- 1)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직업( )
- 2)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 )
- 3) 승진하여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직업( )
- 4)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직업( )
- 5) 기타( )
15.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 어떤 직업을 택하겠습니까?
- 1)정신노동을 주로 하는 직업( )
- 2)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업( )
- 3)어떤 직업이든 상관 없다( )
- 5) 기타( )
16. 직장에 취업할 때 다음 사항 중 어느 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1)최종 학력( ) 2)최종 학교 성적( )
- 3)친척이나 부모의 도움( ) 4)인상이나 생김새 ( )
- 5)열심한 자세( )
17. 여러분은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어느 계열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합니까?
- 1)대학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인문계( )
- 2)산업발전에 직접 이바지 할 수 있는 실업계( )

18. 부모는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1)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
- 2)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
- 3)취직할 때까지(    )      4)결혼할 때까지(    )
- 5)결혼 이후라도 사정에 따라(    )

19.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생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1)매우 만족스럽다(    )      2)약간 만족스럽다(    )
- 3)그저 그렇다(    )      4)약간 불만스럽다(    )
- 5) 매우 불만스럽다(    )

20. “우리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1)확실히 그렇다(    )    2)대체로 그렇다(    ) 3)모르겠다(    )
- 4)대체로 그렇지 않다(    )    5)확실히 그렇지 않다(    )

21.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으나 아직도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 1)자기 자신(    )    2)자기 가족(    )
- 3)자기의 조상이나 친척(    )    4)자기의 직장(    )
- 5)우리 국가(    )    6) 기타(    )

22. 우리들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장래에 자기가 희망하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 1)매우 자신 있다(    )    2)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
- 3)잘 모르겠다(    )    4) 조금 자신이 없다(    )
- 5)매우 자신이 없다(    )

23. 여러분은 우리 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 생각합니까?

- 1) 지금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
- 2) 지금보다 조금 좋아질 것이다(    )
- 3)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
- 4) 오히려 지금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
- 5) 지금보다 대단히 나빠질 것이다(    )

24. 우리주변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차이가 너무 심해 사회문제가 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장래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1)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
- 2) 차이가 있으나 다소 줄어들 것이다(    )
- 3) 지금과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
- 4) 차이가 조금 심해질 것이다(    )
- 5) 차이가 대단히 심해질 것이다.(    )

25. 학생은 지금 몇 학년입니까?

- 1) 5학년(    )            2) 6학년(    )

26. 성별

- 1) 남 (    )            2) 여 (    )

27. 현재 어느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 1) 제주도(    )            2) 서귀포시(    )
- 3) 남제주군 (    )            4) 북제주군(    )

28. 우리집의 생활형편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1) 매우 여유 있음(    )    2) 여유있음(    )    3) 보통(    )
- 4) 조금어려운 (    )        5) 매우 어려움(    )

29. 우리집은 누가 돈을 벌어 생활합니까?

1)아버지 혼자(    )    2)부모 모두 맞벌이(    )

3) 어머니 혼자(    )    4)기타(    )

30. 보호자의 직업은?

1)공무원(    )    2)회사원(    )    3)서비스업(상업포함)(    )

4)감귤과수원(    )    5)일반 농,어업(    )    6)기타(    )